

12/25/16

설교 제목: 하나님이 보내 주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1:1-5, 9-14

-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절관주** 1 요 1:2
-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Merry Christmas!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탄절이 왜 즐겁고 기쁘십니까?

공휴일이라서 일 안가고 놀 수 있으니까요?

쇼핑 센터나 레스토랑 등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멋있게 되어 있고 캐롤까지 흘러 나와 분위기 있고 기분이 up 되니까요?

거기다 하얀 눈까지 내려 주면 white Christmas,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니까요?

친구들하고 all night 파티를 할 수 있어서요?

쇼핑하고 선물 나누는 것이 재미 있어서요?

지난 10 일 미국 텍사스 주의 한 쇼핑 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쇼핑 몰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과 산타와 사진을 찍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산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타는 가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2016 년 전 12 월 25 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아이들 손을 잡고 온 부모들에게 다가가 "이제 거짓말은 그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산타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산타나 루돌프 따위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아이들은 실망하여 눈물을 터뜨렸고 그러자 부모들은 당황해 했습니다.

드디어 두 아버지들이 이 남자에게 다가와 그만 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산타는 없단다!"라고 계속 소리쳤으며 그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데이브 그레삼 목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무도 산타가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 재미로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멍청이이다"라고 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산타가 없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 용기있게 진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나마 데이브 그레삼 목사님의 용기있고 진실된 행동에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데이브 그레삼 목사님처럼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선포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귀중한 선물이 됩니까?

왜냐하면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천형을 지고 사는 우리가 그 천형을 벗어 버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 장 1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말하는 태초보다도 더 근원적인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 이전, 다시 말해 시간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장 1 절의 태초가 천지를 창조할 즈음의 시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 장 1 절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이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시던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각각 구별된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 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구별되어 함께 존재하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만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 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 1: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같이 계속되는 창세기 1 장에는 '이르시되'가 11 번 나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아울러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 안에'는 '말씀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장 6 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와 일맥 상통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생명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의미이며 요한복음 8 장 12 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와 일맥 상통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줄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오심과 오심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범죄한 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요 8:44)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실로 대단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국가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녀들인 박근혜, 박지만, 전재국, 노재현, 김홍일, 홍업, 홍걸, 김현철, 노건호, 이들이 대통령 자녀로서 누린 특혜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연셀색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요즘 화제의 인물 최순실 딸 정유라가 누린 특혜들을 보십시오.

이화여대 입학 과정, 삼성의 300억 승마 지원, 유럽에 숨겨둔 최대 약 10조까지 될 수 있는 돈 등등.....

그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이런 특혜를 받아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자의 지위를 누려 보지만 상속자가 아니면 감히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도 없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누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17 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고 말합니다.

씩어 없어질 세상 권력자의 자녀들도 세상의 온갖 특혜를 누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릴 권리와 혜택이 얼마나 어마어마 한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사실보다 더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씻겨 줄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되어 마땅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 번을 오신다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제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이 만들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2,000 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기쁨이 넘쳐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00 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진 시골벽적인 성탄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선물인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